

대명소재, 편광필름 문경공장 건설

대명소재는 6월7일 경북 문경시와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하고 LCD용 편광필름 공장 건설에 나섰다.

대명소재는 2011년 12월까지 380억원을 투자해 문경 영순 제2농공단지 내 4만5000㎡ 부지에 광학디스플레이용 편광필름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.

대명소재는 약 200명을 고용해 2015년까지 연 매출액 3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.

대명소재는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LCD용 편광필름과 3D 안경용 필름을 생산해 그 중 85%를 수출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1/06/07>